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송기도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국격'이다. '인격'(人格)이 사람으로서의 됨됨이 즉, 사람으로서의 품격(品格)을 말한다

둘러싼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한덕수 주미대사가 지난 16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후 회의에도 참석치 않고 미

국격(國格)과 외교

이 대통령은 G20 회의를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고 수차례에 걸쳐 역설했었으며, 청와대는 G20 회의를 앞두고 '모든 정부 부처에 국격 향상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지시했었다

하지만 그를 대사로 받아들여주는 해당 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심정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국격(國格)과 외교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으니 이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품위있는 후진국이나 제3세계 국가

를 해야한다. 외교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기본 나쁘지 않게 말할 때 '외교적 발언'을 한다고 얘기한다

장을 수여한다. 그리고 재임기간 친분을 쌓아온 주요 인사들에게 이임인사를 하게된다

이런 일들은 외교적 관행에 속하는 일이다. 소위 외교적 품위라고 할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체적으로 지켜지는 일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소위 선진국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정면 배치돼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한덕수 주미대사의 결정은 국제관례를 고려하지 않는 후진국 또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그를 대사로 받아들여주는 해당 국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심정장을 제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한덕수 주미대사의 결정은 국제관례를 고려하지 않는 후진국 또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칼럼



안중현

과거 우리 민족은 수없이 많은 국난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선제보훈(先制報勳)은 국민통합 요체다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처럼 높아진 국격 만큼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있을까

중함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 자기희생을 다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의 역할에 맞는 사회적 존경과 예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2010년 국가보훈처는 한·미·중·일 4개국 청소년 2400명을 대상으로 국가관·보훈의식, 역사관, 국제관계·다문화, 개인가치관 등 4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청소년의식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만큼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은 국민은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항상 껴 있는 선제보훈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인 것이다

기고



배정현

지난해 1월 17일,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공단) 정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여수공단 입주업체 정전 예방 적극 협조를

된 환경 속에서 광주·전남의 최대 산업단지인 여수공단에 대한 완벽한 전력공급 대책은 물론 2차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하이전을 희망하지 않는 고객사의 이유도 의미는 있다. 1월~3월 정도 소요될 부하이전 작업으로 인한 공장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여수공단 정전사고 이후 지식경제부의 합동조사 결과, 권고된 보강 대책을 중심으로 여수공단에 대한 완벽한 전력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 발생하지도 모르는 정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내 전력망을 건설할 취지를 생각한다면, 자사만을 위한 이기적 발상은 결국 완벽한 여수공단 전력공급을 더디게 할 것이다

특히, 정전은 전력공급 설비나 산과 들, 도심에 위치해 자연재해와 차량 충돌·헝기 추락과 같은 인재, 고객구내 설비의 이상 작동 등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대규모 정전에까지 이를 수 있다

다음은 순간전압강하 피해 최소화다. 기존 여수공단 계통을 1개에서 2개로 분리해 서로 다른 계통에 순간전압강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여수공단 입주업체 정전 예방을 위하여, 여수공단에 대한 완벽한 전력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냄새 풍기고 공기 탁해지는 대형마트 시식코너 자제를

소위 아이쇼핑이라고는 있다. 꼭 물건을 사기 보다는 눈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눈요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는 것이다

이 불리는 식료품(일용잡화) 코너에 가면 이런 휴식의 기분이 약간 상한다

타해지고 심할 때는 조리대 주변을 지나면 눈도 따갑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공기까지 탁해져 혐기증까지 느껴진다

타해지고 심할 때는 조리대 주변을 지나면 눈도 따갑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공기까지 탁해져 혐기증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다른 코너와 달리 사람이 가장 많

다. 음식을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 조리코너와 분식코너, 그리고 새 상품 홍보를 위해 즉석에서 조리해 시식하는 시식 시연 코너도 있다

타해지고 심할 때는 조리대 주변을 지나면 눈도 따갑다. 손님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공기까지 탁해져 혐기증까지 느껴진다

시설

진정성 결여된 이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편중인사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학연·지연을 따지진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이 많다"며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명박 정권 1년을 남긴 시점에서 국민적 불신 쉼과 레임덕 현상의 가속 추이를 우려하며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정권 1년을 남긴 시점에서 국민적 불신 쉼과 레임덕 현상의 가속 추이를 우려하며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난제 산적한 F1, 정부 특단의 대책 세워야

올 F1(포뮬러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가 '적자 탈출'의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 지사까지 나서기도 했던 것이다. 더욱이 정부 지원도 예초 요청액 300억 원 가운데 50억 원만 반영됐으며, 자체 확보 예정인 운영비 150억 원도 90억 원만 책정된 상태다

전남도에 따르면 F1조직위원회는 최근 60명의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는 등 최소 인원으로 남겠다고 한다

F1은 낙후지역인 전남의 성장 동력이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행사다

정부는 더 이상 F1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후자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F1은 낙후지역인 전남의 성장 동력이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행사다

無 等 鼓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여성규외위원과 주성영 의원 간 낯뜨거운 면담이 벌어졌다

연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 특권이 따른다

주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이고, 여 의원은 경남 남해·하동지역구다

연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 특권이 따른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거 지역구 1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합당에 최종 제안했는데, 남해·하동은 전국에서 인구

연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 특권이 따른다

한전 측은 순간전압강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연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 특권이 따른다

한전 측은 순간전압강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연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200여 가지 특권이 따른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洙
대표전화 222-8111-2200-55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